

# 유치 열기 확산 ... 시민들 자발적 참여가 관건

## 2019세계수영선수권 광주에서

### 하과제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확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유치만 되면 경제 파급효과가 2조원이 넘고, 1만8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야말로 광주지역에 '대박'을 안겨줄 메가 스포츠 이벤트지만, 아직까지 광주 시민의 관심도는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FINA) 실사단의 평가접수에 지역민의 유치 열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불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강제동원 형식이 아닌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1회성 행사에 대해 예산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넬 마컬레스크루 FINA 사무총장 등 실사단 10여명은 오는 28일 인천공항을 거쳐 광주공항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다. 실사단의 접수가 개최지 평가 점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깨끗·친절한 이미지 중요 광주 높은 시민의식 보여 실사단에 감동 선물해야

광주시는 실사단의 환영을 위해 광주공항 로비에 관련 공무원과 유아스포츠팀을 포함한 수영클럽회원 등 50여명 안팎의 소규모 환영인파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하계유니버시아드 실사단 방문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환영식을 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사단의 환영식은 물론 이동경로, 숙소 앞 등에서 유치 열기 확산에 힘을 보태는 게 중요하다. 또, 실사단(차량)을 만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환영의사 등을 표현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얻어내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시는 실사단의 동선에 따라 환영 플래카드와 실사위원들의 모국 국기를 곳곳에 배치해 유치 불 띄우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플래카드 문구도 한국어와 실사위원의 모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한편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진심이 담긴 여러 유형의 문구를 삽입하는 '감



### 북구청 광장 봄꽃잔치

10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2013시민들과 함께하는 봄꽃잔치'가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봄꽃과 야생화 10만본이 전시된 이번 봄꽃잔치는 오는 19일까지 열리며 부대행사로 마술공연과 인형극 공연 등이 펼쳐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 프로젝트'를 검토중이다.

시는 또 실사단 방문시기에 열주수영장에서 열리는 제85회 동아수영대회의 참관을 유도하고, 대신민 홍보를 통해 1000석이 넘는 관람석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사단에게 광주 시민의 수영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장소로는 수영대회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이번 동아수영대회는 2013하계유

니버시아드대회와 제15회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선발전 등을 겸하는 대회로 전국에서 박태환 등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인 만큼 광주 시민의 참여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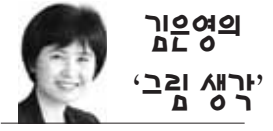
시는 이 외에도 실사단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수영선수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만큼 깨끗하고 친절함 광주 이미지를 위해 대대적인 친절 캠페인과 도심 청결 운동,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등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안기서 체육U대회 지원국장은 "FINA위원과 동아수영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광주 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광주시민의 뜨거운 유치 열망이 실사단에게 진심으로 전해진다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jilucky@kwangju.co.kr

###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문학인의 초상' 톨스토이



### (24) 안나 카레리나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 나름으로 불행하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1822~1910)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문장이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불행한 가정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안나 카레리나'는 토마스 만의 표현대로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닌, 농노제 붕괴에서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의 초상을 그려낸 위대한 '사회 소설'인 것이다.

얼마 전 영화 '안나 카레리나'가 개봉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세심 그 명작의 감동이 밀려와 한동안은 누구와 만나도 '안나 카레리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다. 감정과인물, 그 감흥이 달아날까봐 톨스토이의 옛 책들을 다시 펼쳐든다. 그 책 속에서 만난 톨스토이의 초상화가 더욱 반갑다.

톨스토이는 화가들이 도전하고 싶은 초상화의 모델이었던 듯 싶다. 수많은 화가들이 문학인의 초상으로서 톨스토이를 그렸으며 19세기 말 러시아 리얼리즘 회화의 거장인 일리아 레핀(1844~



일리아 레핀 작 '숲 속에 누워있는 톨스토이'

1930)은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톨스토이와 교류하면서 그의 초상을 수십 점 그렸다. 레핀은 살아있는 신화로서의 대문호가 지닌 정신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발을 갈겨나, 기도하는 톨스토이 삶의 여러 단편들을 연작으로 남겼다.

작품 '숲 속에 누워있는 톨스토이'는 톨스토이가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 책을 펴두고 쉬고 있는 소박한 모습이다. 레핀은 더운 여름 공기, 푸르른 나뭇잎,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든 햇살, 그 빛이 군데군데 그를 비추는 모습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작가의 내적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대지에 온 몸을 맡긴 톨스토이의 휴식을 담은 레핀의 초상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 조용히 깊어지는 톨스토이의 내공이 전해져 온다.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강운태 광주시장 인터뷰

## "광주의 대회개최 능력·열망 보여주겠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광주'를 전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대회 유치가 유력하다'는 낭보가 들려오면서 국제스포츠 도시로서 광주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회 유치를 제안하고, 유력 유치 후보도시로 떠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강운태 광주시장을 10일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본과 중국이 유치신청을 포기하면서 광주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일본과 중국은 강력한 경쟁상대다. 광주로서는 많은 고민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수차례의 해외출장때마다 중국과 일본의 국제수

영연맹(FINA) 위원들을 만나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해왔으니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FINA의 홀리우 회장과 코넬 사무총장에게도 조율을 해주도록 요청했으며, 지난달엔 유럽출장 중 중국에 들려 '광주에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추가 유치신청과 같은 변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책이 있는지.

▲FINA 규정상 1만달러만 내면 7월 초까지 추가 유치신청이 가능하지만 중국이 막판에 신청서를 접수할 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오히려 홍콩을 주의해야 한다. 홍콩은 2015~2017년 개최지 선정 당시에도 투표 10일 전에 유치신청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유치가 확

정된 것은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이따 말로 예정된 FINA실사과정을 통해 광주의 대회개최 능력을 검증받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에 세계적인 수영센터를 건립, 수영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광주의 열망을 FINA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생각이다.

-수영대회 유치 아이디어를 처음 냈다고 들었다.

▲지난 2010년 말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보다 더 큰 행사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영대회를 유치하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수영은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로 꼽힌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무려 1개월간 2만명의 선수단이 한 도시에서 먹고 자며 치르는 행사다. 전세계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올림픽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초대형 국제행사를 치렀다는 광주 시민의 자부심, 자신감도 무시하지 못할 효과다. 원래 부산에서 개최를 희망했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 광주에서 유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대구와 공동으로 2017년 제4회 월드컵배스볼클래스(WBC)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는 영남의 대표도시로서,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다. WBC공동유치는 단순히 영·호남의 상호협력 차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월에 열리는 만큼 날씨가 추울까봐 다소 걱정이 되지만, 새로 이어지는 최첨단 야구장에서 흥



히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WBC에 이어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가 잇따라 열린다면 광주는 국제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150만 광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빛의만정

- 김중두

나라빔 900만원

1인당 888만원

北 미사일만 겁나는게 아니다

##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초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www.elysia.co.kr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빌드업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http://www.flowerelysia.co.kr)

에경사화환 / 축하화환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 엘리시아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참조기탕	12,000원
생우럭탕	12,000원
대구탕	15,000원
생선초밥	12,000원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정식코스요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1인기준 2인이상)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